

결혼에서 남녀의 역할

성경말씀: 엡5:18-33, 엡5:22-25

복습

결혼 시리즈, 지난 번, 결혼의 우선권

결혼을 최고의 우정 관계로 본다면 즉 배우자가 가장 친한 친구라면 결혼과 가정이 삶에서 가장 중요해야 한다. 모두 거기에 최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엡5:31에서 바울은 창2:24를 인용한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만 한다.” ★★★

즉 남편과 아내는 새로운 한 개체로서 상대방에게 최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에너지와 근면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배우자에게 주어야 한다. 부모가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결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결혼의 능력 때문이다.

결혼은 당신의 삶의 여정의 성공과 실패를 정해 준다. 아합과 이세벨(왕상16:29-33)

결혼이 행복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 낼 수 있다.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결혼이 불행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삶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결혼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을 하며 배우자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 ‘결혼에서 남녀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

결혼을 하면 로맨스가 지속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유: 결혼에는 진실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 자식 간, 친구들 간에는 문제가 안 되던 약점이나 부족함들이 배우자에게는 큰 문제가 된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배우자의 눈에 상대방의 모든 결함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배우자 탓으로 돌리고 극복하지 못하면 ‘결혼 이혼 결혼 이혼’의 패턴을 따르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의 능력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내게 허락된 최상의 친구임을 인정하며, 서로를 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화되게 하여야 한다.

남자들은 대개 22절을 인용하며 여자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한다(21절은 무시하고). ★★★

에덴동산에서의 저주로 인해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개념’은 여자를 억누르는 식으로 변해 버렸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결혼 후에 곧바로 이것을 눈치 채고 반대하고 저항한다.

평등주의자, 여성 우월 주의자, 전통주의자, 상호 보완주의자 등 상관없이 결혼에서 남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것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행하는지가 행복한 가정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가정생활 안에는 각자가 자라온 환경, 현 시대 문화, 다른 친구들의 결혼, 잡동사니 책, 영화, 드라마 등에서 얻은 경험이 모두 요약되어 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결혼 생활에서 다툼의 근원이 되고 논쟁이 되는 주제이다.

둘 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신을 옹호하려 한다(남자 22-24절, 여자 25절).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복종을 잘 이해할 때 결혼의 행복이 찾아온다.

특히 예수님을 통해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면 큰 복이 된다. ★★★

대부분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고 결혼하므로 많은 갈등을 겪는다.

하나님께서 부부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규칙들을 살펴보면 서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처음에 일어난 일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고 좋아하셨다. 타락으로 인해 좋은 것들이 망가짐, 예수님에 의해 이것들이 회복되었다.

이것을 이해하면 남자의 권위와 머리 됨 그리고 여자의 복종의 관계를 바로 알 수 있다.

창1:26-28,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심.

남자와 여자로 나누신 것이 남녀 관계에서 중심이 되어야 함.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다.
또한 처음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삼위일체)으로 창조되었고 같은 복을 받았으며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뒤에 곧바로 그들이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고 하신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공통으로 이루어야 할 책임이다.

남자만으로 혹은 여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상호 보완해야 한다.

남자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하셨다(창2:18). 온 우주에서 처음 발견된 불완전성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이것이 남자의 '머리 됨'의 기원이다.

18절의 '합당한 조력자'(help meet), 이것은 결코 남자가 우월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영어의 'help'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내가 모든 일을 할 테니 너는 도와라."

성경에서 'help'라는 단어(히브리어 에제르(strong number 5828))는 많은 경우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
며 군사적인 도움을 가리킨다(시46:1).

그러므로 help는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전하게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창2:23)

우리는 서로가 배우자를 필요로 하는 부족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

서로 다르다는 것을 통해 남자와 여자는 완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3장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반역하며 죄를 지어 타락하고 추방되는 것을 보여 준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시작된다.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시작됨(창3:9-13).

창3:16: 여자에 대한 저주, 이후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 서로를 보충해 주는 것이 되지 못하고 확대하고
착취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의존하는 자가 되었고 남편을 열망하는 처지가 되었다.

구약 시대에 여자들은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했다(마14:21 등).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러한 회복에는 남녀의 관계를 처음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여자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창조 때의 명령을 공동으로 수행할 자

예수님은 머리이시며 동시에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셨다.

빌2:5-11, 예수님께서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의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이었다.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동등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양보하며 종의 위치로 내려갔고, 아버지는 그
선물을 받고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높여 준다.

결혼 관계에서도 남녀가 동등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의 선물을 준다(22-24절).

남편은 무조건 복종하라고 강요해서 권위를 받아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권위를 얻어야 한다.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25절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자매님들이 결혼 생활에서 이 구절을 통해 종 되신 예수님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

고전11:3,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

아들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기쁨 마음으로 아버지의 머리 되심에 복종하였다.

열등감이나 강제적 압박감에서 한 것이 아니다.

모든 면에서 서로 동등하되 아버지와 아들은 한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한다.

부부 간에도 서로 동등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 속에서 여자들이 복종한다.

중요한 점: 남자가 강요하는 복종이 아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복종하시면서 연약함이 아닌 위대함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신비이다(엡5:32).

고전 11:11-12,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남편의 머리 됨

여자의 복종은 남자가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섬기는 리더가 된다’는 명제와 함께 성립된다. ★★★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있을 수 없다(행4:19-20). 하나님께만 가능하다.

로마서 13장: 국가에 대한 복종도 마찬가지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요, 교만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현 시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혜와 특전을 많이 받는다. 주인 노릇
기독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낮추고 크게 희생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이다.

요13:1-17, 처형되기 전 날 밤, 발을 씻어 주시면서 ‘권위와 머리 됨’에 대해 정의를 내리신다.

12-16절 읽고 ★★★

권위와 머리 됨은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기쁘게 하고 세워 주는 것이 권위의 시작이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누가 가장 높가에 대해 다투고 있었다(마20:28).

나는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신다.

오순절 성령 감람 이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임을 보여 준다. ★★★

그러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인지해야 한다.

결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바로 인지해야 한다,

남편의 권위와 여자의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할 모델로 정할 때 기쁜 방법으로 일어난다.

예수님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행복한 가정

무조건적인 복종은 없다. 서로 의논하고 다투기도 하고 머리를 모아야 한다.

그래도 끝이 안 날 때 남자가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여자는 따라간다.

이 과정이 없이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죄로 인해 부패된 남녀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일어날 때 작은 천국